

제조업 경기 둔화조짐

94년 4/4분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제조업 경기가 오는 3/4분기에는 약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산업은행이 1218개 주요 제조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95년 3/4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경기는 오는 3/4분기중 생산 및 출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재고도 증가함으로써 경기의 진정기미가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KDB산업실물경제지표의 예측에 의한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는 2/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2%, 15.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3/4분기에는 각각 14.9%, 14.8%로 그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제조업종별 생산·출하추이 및 전망						
구 분	생 산			출 하		
	95.1/4	95.2/4	95.3/4	95.1/4	95.2/4	95.3/4
운수장비	21.2	16.1	38.8	23.1	19.5	36.8
기 계	22.2	23.6	26.5	23.3	29.1	26.2
전기전자	33.7	26.4	22.3	39.1	31.7	26.3
조립금속	21.3	15.6	12.5	21.4	14.4	9.5
1차 금속	8.8	11.8	12.1	10.4	13.8	14.7
화학	8.6	13.1	12.0	8.7	13.1	12.9
비금속광물	7.6	9.6	9.5	4.9	12.3	10.7
종 이	13.0	9.0	7.8	12.8	9.4	8.4
음 식 료 품	4.3	2.1	2.1	5.1	3.0	▽1.1
섬 유	▽1.0	▽2.9	▽5.6	▽2.2	▽4.8	▽6.2

주) 1995년 2/4분기 이후는 산업은행의 예측치임.

한편, 수출은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선진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조기업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다변화 노력과 지속되는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계속 늘어나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 각각 2.0%, 1.9%포인트 씩 낮은 29.7%(305억달러)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는 2/4분기를 장점으로 상승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조선 등 운수장비업종의 3/4분기중 생산·출하가 내수 및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8.8%, 3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섬유업종에서는 임금상승 및 인력난 등 채산성 악화로 인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 및 출하활동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3/4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6.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학저널 1995/7/3>